

# 아마추어 연주자들에 무대를 드립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운영하는 ACC시민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지난 15일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첫 연습을 시작했다. 오케스트라는 오는 12월 10일 문화전당 예술극장 1 무대에서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 ■ 금호아트홀 ‘금호 시니어콘서트’

40세 이상·은퇴 연주자 등 참여  
독주·앙상블 등... 10월중 연주회

## ■ ACC 시민오케스트라

40명 선발 연습 시작... 추가 모집  
파트·합주 연습후 12월 10일 무대

## ▼ ‘금호시니어콘서트’가 열릴 금호아트홀.



‘악기 연주에 열정을 갖고 있는 당신에게, 무대를 드립니다.’

최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사무실에 아마추어 연주자들의 문의 전화가 자주 걸려온다. 광주 지역의 유일한 클래식 전용홀로 수준높은 클래식 공연을 유치해온 금호아트홀이 올해 처음으로 ‘아마추어 연주 무대’를 기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건 많은 이들의 로망이다. 요즘엔 개별적으로 악기를 배우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직접 ‘무대’에 서는 꿈을 꾸는 이들이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마추어 연주자나 음악을 전공하고도 오랫동안 연주 현장에서 떨어져 있던 이들을 위한 무대가 잇따라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은 올해 처음으로 ‘금호 시니어 콘서트’를 시작한다. 최근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등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합주 무대는 종종 있어 왔지만 솔로 연주자를 위해 공연 무대를 만들어 주는 건 드문 일이다.

2010년부터 ‘금호주니어 콘서트’를 개최, 클래식 음악 영재들을 발굴해온 금호아트홀이 클래식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 기획한 ‘금호 시니어콘서트’는 만 40세 이상이 참여할 수 있다. 클래식 음악을 사랑하는 아마추어 연주자, 음악을 전공했지만 전문 연주 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음악인,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은퇴 한 연주자 등이 대상이다.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 부문을 대상으로 하며 독주 뿐 아니라, 피아노 트리오 코르넷, 킨트 등 10인 이하의 앙상블 형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연주회는 2~3일 동안 열릴 예정이며 한 사람이 풀 콘서트를 열기 어려운 점을 감안, 회당 5~6명이 연주회를 꾸미게 된다. 신청마감은 오는 8월 10일까지며 연주회는 10월 중 진행하게 된다.

지난 3일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향에서 정년퇴임한 프로 연주자부터 의사, 교사, 회사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자신만의 무대’를 꿈꾸며 문을 두드리고 있다.

금호아트홀 관계자는 “클래식 애호 인구를 늘리고 시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의미로 콘서트를 기획했는데 많은 이들이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며 “열정적인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그만큼 많은 의미”라고 말했다. 문의 062-360-8432.

지난해 ‘장롱속 악기를 꺼내드립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들에게 무대를 제공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올해 자체적으로 ‘ACC 시민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 첫 연습을 시작했다.

예술감독을 맡은 김유정 광주음악협회장과 오케스트라를 이끌 정철태 지휘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이달 초 열린 오디션에는 모두 60여명이 참여했고 40명이 합격했다. 단일으로는 중학교 2학년부부터 6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참여하고 있다.

지난 15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첫 만남에서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등 파트 연습을 진행했다. 9월까지 파트 연습을 거쳐 10월부터 합주 연습을 진행한 후 12월 10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1 무대에 오르게 된다.

현재 ACC 시민오케스트라는 부족한 파트를 보강하기 위해 2차 공모도 진행중이다. 바이올린(4명), 비올라(3명), 트럼본(2명) 클라리넷, 바순, 호른, 트럼펫(각 1명) 파트를 모집중이며 마감은 오는 23이다. 오디션은 26일 오후 6시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아틀리에 1에서 열린다. 문의 062-601-46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영산강문화관 30일까지 기획전 ‘Landscape’

### 젊은 수묵화가 김동아·윤준영 2인전



윤준영 작 ‘다름없이, 별은 반짝인다’

영산강문화관(관장 장희정)이 오는 30일까지 기획전 ‘Landscape’전을 개최한다. 2인전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의 초대작가는 풍경을 주 소재로 작업해온 젊은 수묵화가 김동아와 윤준영이다.

윤준영의 작품 속에 자주 등장하는 건 집과 나무다. 위로와 안식을 주는 이미지 대신 위태로운 듯한 가냘픈 나무들과 사각형 형태의 단순한 집들이 화면을 채우지만 그 안에서 묘하게 편안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가끔은 끝도 없이 적막해졌다’ 등의 연작에선 기하학적 형태의 사물을 배치, 색다른 이미지를 전한다.

이에 반해 김동아의 작품은 좀 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이다. ‘바람 치유’, ‘바람에 흔들리듯’ 등의 작품에선 검은색이 갖는 무게를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이미지를 선사한다.

초록, 파랑 등 은은한 채색으로 묘사한 ‘소소한 풍경’ 연작에서는 밝은 풍경 속에 숨겨진 인물들을 찾는 재미가 있다.

전남대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윤씨는 세 차례 개인전을 가졌으며 조선대 미술학과 석사 과정을 수료한 김씨는 지금까지 3차례 개인전을 개최하고 다양한 그룹전에 참여했다. 문의 061-335-0861. /김미은기자 mekim@

## 목관 앙상블 ‘마데라’ 창단 연주회 21일 금호아트홀



왼쪽부터 이주혜, 송애리, 이은영, 인해비

클라리넷, 오보에 등 목관악기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따뜻하고 감성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광주의 젊은 여성 목관연주자 4명이 목관 앙상블 ‘마데라(Madera)’를 결성하고 창단연주회를 갖는다. 21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

스페인어로 ‘나무’를 뜻하는 ‘마데라’에는 광주 시립교향악단 부수석으로 활동하는 오보이스트 송애리씨를 비롯해 플루티스트 이주혜, 클라리네스트 이은영, 바수니스트 인해비가 참여하고 있다.

연주회 첫 번째 순서로는 모차르트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판타지아’가 연주되며 플로랑 슈미트의 ‘플루트 그리고 클라리넷을 위한 소나티네’, 장 프랑세의 ‘목관 5중주’ 등이 이어진다.

이번 연주회에는 아랍피로페리아노콩쿠르에서 1위 입상한 피아니스트 이철민이 함께하며 바히르 챔버오케스트라 단원인 첼리스트 김민수가 게스트로 출연해 나실인 작곡가의 곡을 협연한다. 전석초대. 문의 010-4301-1929. /전은재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특허방수 2중압박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지재 추진제품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홈페이지 [www.ipalg.com](http://www.ipalg.com)에서 만나보세요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나 잔 랜디니와의 콜라보 디자인!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광주전남대리점 10621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T.(061) 284-0485 / 여수 T.(061) 683-0485 / 순천 T.(061) 726-0482 / 광양 T.(061) 795-0485 [www.ipalg.co.kr](http://www.ipalg.co.kr)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